

인권 자료실		
일	날	번호
98 3/11	B12	23

## 과거청산과 불처벌에 관한 실천계획 워크샵

오후 7:35 기독교연합회관 13층 사랑의 다락방

참석자 : 김봉호, 오창래(천주교인권위), 황인성(전국연합), 각노현(민주법연), 백중현(새누리신문), 조용환, 김은영, 이석태(민변), 박래군, 윤연옥(문국진을 위한 모임), 김경남, 황필규(NCC인권위), 최은아, 손민아(민가협), 사랑방 실무자들

사회 : 이대훈

### \* 발제1: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의 과제 및 실천방안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 \* 발제 2: 남미의 과거청산운동에서 나타난 교훈

- 엑토르 놀리, Madres인권담당변호사

민중의 투쟁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기원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의 상황 역시 한국과 다릅니다. 중남미의 정권은 미제국주의에서 수입된 것으로 전민중에게 해를 끼치는 정권이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남미의 각 나라와 상황에 따라 탄압하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1950-60년대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서 독립된 새로운 국가였기 때문에 이민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당시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유럽에서 온 이들 이민노동자들은 자국에서의 경험으로 여러 사회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아르헨티나정부에서는 거주인법을 만들어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외국인중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추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에 맞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지만 비관적이었습니다. 한번은 하루의 시위에서 천명의 노동자가 살해되는 일도 저질러졌습니다. 당시 아르헨의 인구는 3백만에 불과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반민족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의 투쟁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쿠데타를 이야기하자면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나는 아르헨티나의 실종자가 3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실종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부독재가 극성일때 실종된 사람들중에는 150명의 변호사도 끼어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법정출두영장을 요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역사속에서 가장 곳곳이 일어섰던 저항세력을 말하라면 오월광장 어머니들을 들 수 있습니다. 1982년 아르헨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군인들은 숙된 말로 개같은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육해공군의 세 장군이 국외로 도망갔지만 과거청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과도정부 기간동안 군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면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실종자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정부라는 알폰신정부 역시 선거전에서 공약으로 군인들에 대한 사면법을 무효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폰신대통령이 과거청산을 최선으로 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군인들과의 야합으로 풀었습니다. 지금 군인들과 정부간에 일어난 야합말고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과거청산법령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들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 법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률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잘 알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청산을 국민의 뜻에 따라 하려면 이 점에 대해 고려했어야 할텐데 오히려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아이, 노인, 수녀, 학생등 잡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실종자들에 대한 고문도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군대는 이 사람의 아들을 잡아가지 죽였습니다. 바다에서 떠오른 그 시체는 항문에서



입까지 꼬챙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과거인권침해 범죄자들의 법률상의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폰신 정부에 속한 실종자위원회가 올린 711건의 재판중 처벌을 가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불과 몇 건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비델라를 처벌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정부는 이것을 선전했습니다. 재판에 오른 9명중 1명에게는 5년, 2명에게는 10년 비델라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두명은 석방되었습니다.

알폰신이 원한건 몇 명의 군부만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대규모의 소환운동을 벌였습니다. 최고군사령관을 법정으로 이끌어내라고 압력을 가한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것의 책임자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환운동은 군부에게 달갑지 않은 일임이 분명했고 알폰신정부는 군부반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절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군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구실로 종결법과 직무이행법이 만들어졌고 서둘러 과거청산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 정부는 형을 선고 받은 군인에게 사면을 선고하였습니다. 과도정부는 예전에 있었던 군부의 폭압을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 폭압을 함께 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처벌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이 투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 토의 및 질문

Q 아르헨티나의 인권단체들과 다른 단체들은 불처벌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A 아르헨티나에서는 8개 정도의 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문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 2개 단체가 정직하게 불처벌을 제기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부정권에서는 적이 명확하지만 민선정부에서는 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억압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Q 실종위원회에서는 실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다른 단체들은 이런 일은 하지 않는지요?

A 그것은 짧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실종위원회에서는 불처벌에 관해 일하지 않았고 단지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실종위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불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청산법과 종결법에 반대해서 약 10만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힘든 투쟁이었습니다. 언론의 조작은 집요했고 이것은 국민의 의견을 분열시켰습니다.

Q 나머지 6개 단체는 왜 같이 하려하지 않았습니까?

A 그 6개 단체들중에는 알폰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도 있었고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의장도 알폰신의 하수인이었으며 그런 단체가 또 하나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우리와 같이 알폰신에 대항해 싸우려 하겠습니까?

Q 우리는 알폰신정부가 군부를 청산하려고 했지만, 군부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많이 다른데요?

A 간단하게 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Q 실종위원회의 책을 보면 5월광장 어머니회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월광장 어머니회와의 관계는 어떻게습니까?

A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정보를 빼내기 위한 단체입니다. 어머니회는 이 단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Q 과거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무력적인 응징을 어떻게 생각하며 아르헨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고문자들을 납치, 고문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테러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르헨티나에는 무력으로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단체는 없습니다.

Q 아르헨티나에도 시효가 있을텐데 어떻게 싸우셨는지요?

A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시효란 법률의 책략, 함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체적 법률로는 군부정의법과 직무이행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인권침해자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 1976년3월24일 이전에 실종된 자는 모두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무고한 죽음이었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처음에 재판을 할때 담당판사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재판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밖에 없었던 거지요.

#### \* 정리발언

불처벌에 관해 과거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치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밝혀야되는 문제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등을 변화시키는 일과 공소시효, 재심등의 문제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간단체는 정부보다 힘의 열세에 있으므로 국제연대의 활용 역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인권운동은 지금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왔고 기본적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적 지원이 인권운동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월광장 아르헨티나어머니회를 초청하여 과거청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며 인권운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인권운동이 불처벌문제를 내세우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권운동이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불처벌 문제의 역사적 해결과 그 평가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과거청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패배주의의 극복이 중요합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다수의 '이익'이라는 변명으로, 법질서에서 보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권력범죄 사실들이 늘 은폐되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자료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있다하더라도 불리하게 여론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로 정리하고 찾아내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힘을 확보하고 전문가와 결합해야합니다. 정신대 사건의 문제제기는 교회사회에서 일어나서 여론화까지 10여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시간과의 싸움 역시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조직적 투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권운동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인권운동은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